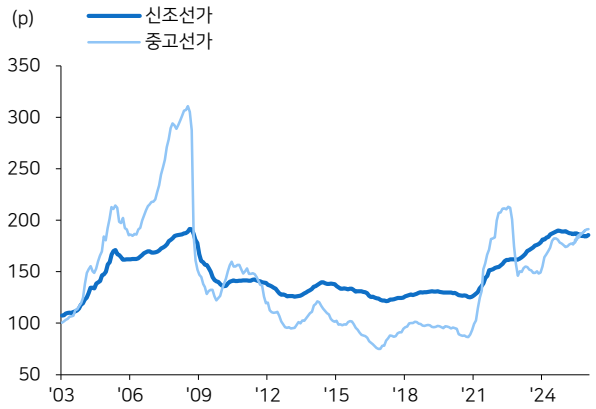
2026. 1. 7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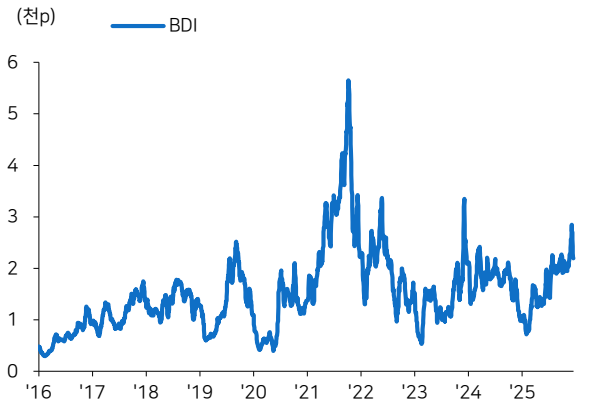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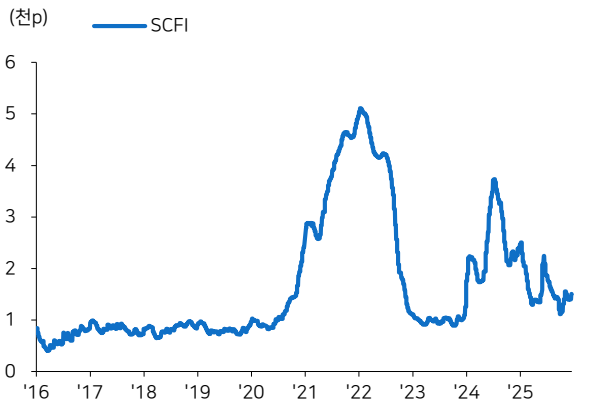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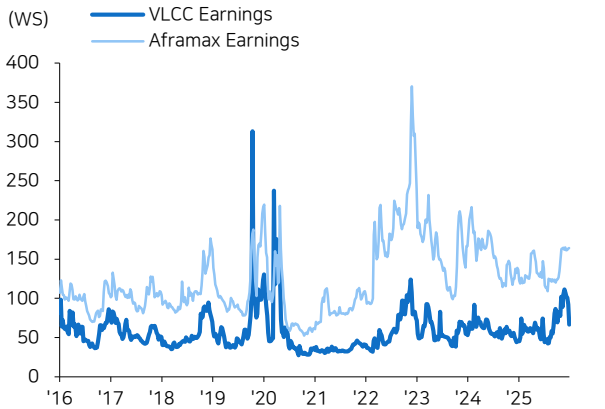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30.0p (-2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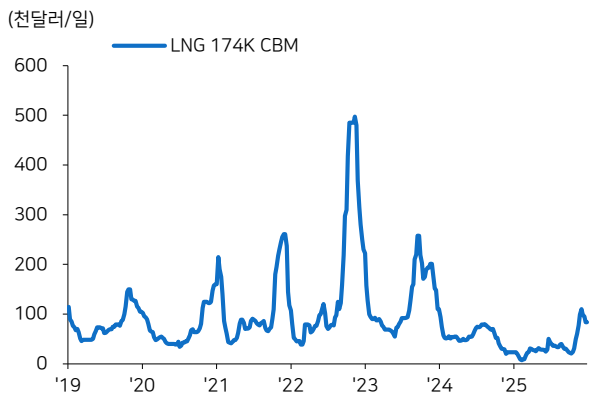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656.3p (+103.4p WoW)



VLCC Spot Rate 53.5WS (-13.0p WoW)



LNG Spot 운임 61.0천달러 (-22.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NYK and Ocean Yield linked to LNG carrier newbuildings at HD Hyundai Heavy Industries — **TradeWinds**

일본 선사 NYK와 Ocean Yield가 HD현대중공업에서 올해 첫 LNG 운반선 신조 발주를 진행한 주체로 지목됐으며, 200,000cbm급 LNG 운반선 4척 계약을 1조5,000억원에 체결했다고 보도됨. 선박은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9년 상반기 인도 예정으로 알려졌고, 추가 4척 옵션이 포함된 거래로 전해짐. 해당 신조는 미국 LNG 생산업체 Cheniere Energy와의 기간용선 사업을 기반으로 한 거래로 전해졌으며, Cheniere Energy가 Dynagas로부터 동일 선형을 다수 용선해왔다고 알려짐. (https://buly.kr/Ezk2UPg)

World's largest LCO2 and multigas carrier handed over to Capital Clean Energy Carriers — **TradeWinds**

Evangelos Marinakis의 미국 상장 가스 계열사 Capital Clean Energy Carriers가 HD미포로부터 22,000cbm급 액화 CO_2 · 멀티가스 운반선 Active를 인도받았으며, 해당 선박은 현재까지 건조된 최대 규모의 저압 LCO_2 운반선으로 알려짐. Active는 LCO_2를 주력으로 LPG · 암모니아 · 일부 석유화학제품 운송이 가능하며, 4척 시리즈 중 첫 번째 선박으로 자매선 Amadeus, Alkimos, Athenian이 올해 추가 인도될 예정으로 전해짐. Capital Clean Energy Carriers에 따르면 2030년 CO_2 포집 · 저장 시장 확대에 따라 해상 운송 수요가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DEaSmtw)

Russian oil exports to India expected to fall amid fresh US pressure — **TradeWinds**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계속하는 인도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인도 정부가 정유사들에 러시아산 및 미국산 원유 구매 내역의 주간 단위 공개를 요청하면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축소 전망이 보도됨. Kpler 데이터 기준 2024년 11월 하루 180만 배럴이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12월 하루 120만 배럴로 감소했다고 전해짐. 인도 정유사들은 명시적인 구매 중단 지시는 받지 않았으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평균 하루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VLCC 시장에는 규제 준수 물량 수요 확대에 따른 우호적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됨. (https://buly.kr/HSYeMAo)

日 1위 조선사 이마바리, 2위 업체 JMU 자회사 편입 절차 완료 — **연합뉴스**

일본 최대 조선업체 이마바리조선이 2위 업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자회사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도됨. 이마바리조선은 기존 보유 지분 30%에 더해 제이에프이와 아이에이치아이로부터 각각 15%씩 지분을 인수했으며, 국제 경쟁 대응을 강화하고 LNG 등 대체 연료선 건조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일본 정부 역시 2035년까지 3,500억엔 규모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선박 건조량을 2024년 대비 약 2배로 확대하는 조선업 부흥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ChqBiJX)

설계부터 건조까지…HD 현대重, 조선사 최초 全공정 DB 화 착수 — **헤럴드경제**

HD현대중공업이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한 미래형 조선소(Future of Shipyard) 전략의 일환으로 조선소 공정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 지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GPU 기반 대규모 연산 환경을 확보한 뒤 선박 부품 관리, 설계, 건조 전 과정을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팩토리와 연계돼 공정 자동화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https://buly.kr/Ezk2Ssy)

삼성重, 中 순찰 로봇 도입…조선소 무인화에 속도 — **뉴시스**

조선업 인력난과 안전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중국 로봇 기업 파오아오와의 협력을 통해 조선소 무인화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 조선 및 해양 산업전 KOMARINE 2025에서 파오아오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선박 점검 솔루션을 공개했으며, 이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과 협동로봇을 연동해 복잡하고 협소한 선박 내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설계됐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레인보우로보틱스과도 협력해 인력난 완화와 안전성·품질 제고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 (https://buly.kr/DwFUZaY)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